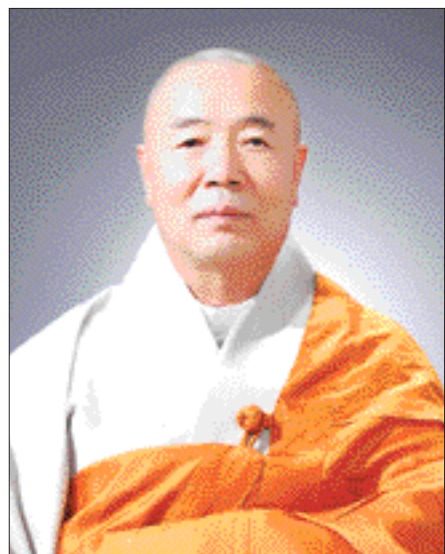




대한불교원효종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한 큰 발걸음,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원효보살의 평등과 무애의 화쟁 사상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추 종단으로 성장해 온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불기 2558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4월 27일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7백여 명이 동참하여 '제13대 종정 정광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종단화합을 우선과제로 삼아 그 동안의 혼란스러움을 정돈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총무원장 우석

원효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대덕 큰스님들께 감사의 큰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하고도 어려운 종단분규를 겪어 오면서도 항상 힘을 모아 주신 종도 여러분께도 두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정진하는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조이신 원효보살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고 또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종단 화합의 큰 틀에서 원효종 종도라면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기다리되 굴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집행부로서 언제라도 누구라도 만나고 소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 종정예하 추대식



4월 27일 봉행된 추모대제 기념촬영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제13대 종정 정광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와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제'

불기 2558(2014)년 4월 27일 경주 콩코드호텔 대연회장



우석 총무원장님의 추모대제 봉행사

1부 : 제 13대 종정 설재 정광 대종사 추대

'대한불교원효종 제 13대 종정 정광 대종사 추대법회'는 총무원장 우석스님의 추대장 전달과 종회의장 태일스님의 불자 전달, 규정원장 심상스님의 주장자 전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 13대 종정스님으로 추대된 정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큰 발걸음을 위한 장에는 항상 있으나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 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효종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있었던 어려움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나아가십시오. 종단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우석 총무원장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 작은 이상들은 과감히 놓아 버리고 종단을 위해 정진하는 노력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2부 : 원효보살 1328주기 추모대제

종정 추대법회에 이어 진행된 '원효보살 추모대제'는 종단의 종조로서 평등과 무애의 정신으로 민중 속에서 대승불교의 참 진리를 전파하시고 희망과 구원으로 자유의 길로 인도해주신 원효보살의 사상과 핵심을 되돌아보고 수행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큰 계기가 되었다.

봉행사 (우석 총무원장)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에도 원근각지에서 마다않고 참석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과 종단임원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종조이신 원효보살의 참 뜻인 화쟁사상을 되돌아 보고 그 근원인 일심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일심은 모든 법, 즉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기이며 일심이 구현한 세계가 바로 정토라는 것입니다. 일심은 평등하고 무차별하며 진

여와 생명이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마음의 근본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체의 차별을 없애고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치며, 차별없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다스리는 중생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원효보살님의 뜻을 영원토록 담아 마음에 새기고 다함께 지극 정진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극락왕생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다함께 기도합시다.

추모사 (창해 원로원장)

원효보살께서는 화쟁의 교법에 의해 자리를 구하시고 대중교화를 통하여 이타를 행함으로써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일관하셨고 인간의 청정한 마음이 현실에 혼숙되어 불각심이 일어난 무명업상을 미오한 현실생활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끊임없이 추구하고 수행함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중생들을 인도하는데 전생을 바치셨습니다. 원효보살의 법호가 '역사의 첫 새벽'을 뜻하는 원효가 아닙니까? 그 진리의 서광을 훤히 한 이 무명의 시대에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그 법력으로 모두가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라옵니다.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과 원효보살의 자비하신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추모사 (보원 총무원장)

원효보살님의 기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추모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지만 종조님께서 생전에 주창하신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마음을 다지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의 핵심인 화쟁론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 화쟁이란 나의 주장만 옳다고 하지 말고 나와 상반되는 주장까지도 수

용하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는 첫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둘째, 시대의 변화를 비롯한 나와 맞지 않는 변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모든 일이 끝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진정한 화쟁사상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원효보살 행장 (자연 재산심의위원장)

한국 불교계의 가장 큰 별자자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원효보살은 617년 현재의 경북 경산군 자인면 지역에 해당하는 압랑군 불지촌 북쪽 밭골 사라울이라는 밤나무 아래에서 탄생하셨다. 삼국간에 전쟁이 극에 달하던 때에 태어나서 유년시절 한 때 화랑이 되어 기상을 떨치시고 열 다섯 살이 되던 해인 632년 불문에 귀의하셨다. 원효는 법명이다. 속성은 설(薛)이고 아명은 서당(誓堂)·신당(新堂)으로, 이두를 집대성한 설총(薛聰)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출가 후 황룡사에서 수도를 하였다. 661년(문무왕 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던 원효는 해골에 담긴 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신라로 다시 돌아와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정토교(淨土敎)의 선구자로 불리며 불교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썼다. <금강삼매경론소(金剛三昧經論疏)>, <심문화쟁론(十門和諍論)>, <화엄경소(華嚴經疏)> 같은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기셨다. 686년 세수 70세를 일기로 입적하신 보살의 삶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가슴속에 깊게 남아있다.

발원문 (원해 복지부장)

인간 본연의 청정심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법계의 무량중생들의 참된 화쟁의 정신적 지표가 되어 미망에서 해



부산교구원장 석불스님 감사패 수여

종단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한 주요임원 및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 및 위촉장 수여

- 감사패 (3명)
 - 총무부원장 보원스님
 - 재산심의위원장 자연스님
 - 부산교구원장 석불스님
- 위촉장 (3명)
 - 협력업체 위촉 : (주)유일토건 대표 정진수
 - (주)김스에프엔씨 대표 김윤식
 - 고문변호사 위촉 : (주)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전영민

재판 진행사항

(원효종 종도에 한해 문의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4일 즉시항고

서울지방법원

- 2013년 카합 2239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김대관의 18명) 2014년 4월 4일 각하 결정
- 2013 카합 253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김대관의 18명) 2014년 4월 4일 각하 결정
- 2013 비합 219 임시총무원장 선임신청(이정일) 2014년 1월 28일 신청 취하
- 2014 카합 10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김순석외 2명) 2014년 3월 25일 기각
- 2014 카합 399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정일) 2014년 5월 28일 기각

고등법원

- 2014 라 46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김순석외 2명)

대법원

- 2011 다 101155 총회무효소송(김순석외 2명) 2014년 2월 24일 대한불교원효종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변경)
- 2013 마 2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병근외 1명) 2014년 5월 19일 총무원장 선출참고 서면 제출

대구지방법원

- 2014 카합 2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정일) 2014년 3월 12일 신청취하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연락처 : ☎ 054)743-0700 팩스 054)741-9002 총무원장 직통 010-4008-5601

추모대제 감사말씀

금번 원효보살 열반 1328주기 추모대제를 본 종단의 대덕 큰스님, 그리고 각 사암의 불자님들이 많이 참석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본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 종단을 아껴주시고 보살피 주시는 종도 여러분과 불자님들의 덕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단합과 열정을 모아 대한불교원효종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함께하는 종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아가십시오. 오늘 다시한번 원효보살의 화쟁사상을 되돌아 보며, 우리 종단의 임원스님들을 대표하여 원효보살 추모대제를 잘 치루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임원명단

종정 설재 정광 원로원장 창해 원로위원 진덕, 수진, 수경, 도철 종회의장 태일 종회부부장 자안, 보광

총무원장 우석 총무부원장 보원 규정원장 심상 재산심의위원장 자연 법규위원장 무상 고시위원장 자광 종학원장 옥천 포교원장 선운

부산교구원장 석불 경북교구원장 법진 대구교구원장 서웅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제주교구총회의장 성호

사회부장 능관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유상 문화부장 대호 복지부장 원해 포교부장 성우 사무국장 수천 조사국장 최쑤

2014년 5월 16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제적공고

금번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아래 스님들을 제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스님들의 제적사유는 본 종단의 승려증 갱신등록기간이(2014년 2월 1일 - 3월 15일, 추가등록 4월 1일 - 4월 15일) 경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아 본 종단에서는 2014년 4월 16일부로 제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김순석(용일 스님), 이순서(원각 스님), 이동수(성원스님), 이정일(인담 스님), 손동주(도봉 스님) 이상 5명

앞으로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무단으로 대한불교원효종을 사용하는 단체는 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공고합니다.